

너희가 까리용을 아느냐

캠퍼스의 중심부, 오리엔트에는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시설이 있다. 우리 학교 설립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동창회에서 건립한 전자 장치로 된 한 벌의 종이 있는 종탑이 그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석립의 종'이라는 명칭이 붙어있지만 학내에서는 널리 '까리용'으로 불리고 있다.

◇ '까리용'은 무슨 뜻인가?

몇몇 학우들은 '까리용'이 하늘로 솟구치는 지그재그 모양의 기둥 형상이 마치 '용'을 연상케 한다고 하여 이를 본따 '까리한 용'의 준말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종탑 시설물을 지칭하는 영어명 'carillon'의 음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원래 불어에서 나온 말인 carillon은 'II'이 목음 이어서 '카리용'으로 발음한다. 한 때 이 종탑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세 개가 떨어진 형상이라고 해서 '학교탑'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참고로 재학 중 연속 3회 학사 경고를 받은 자는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된다.

◇ 까리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치된 옥외용 악기이다. 총 25개의 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이가 약 12m인 기둥은 철판으로 빨간색, 파란색, 녹색으로 특수도장했다. 입력된 전자 신호에 따라 종을 때려 음악이 연주되는데 현재 연주할 수 있는 곡 수는 총 58곡이다. 종탑 바로 옆에는 전자식 건반을 설치할 수 있는 연결 박스가 있어 직접 연주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 까리용은 무엇을 연주하는가?

학우들은 누구나 한번쯤 정시에 울리는 까리용의 종소리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현재 까리용의 음은 많이 어긋나 있는 상태다. 원래 동창회에서 관리하던 것을 종이 고장나서 울리지 않게 된 후, 2002년 시설팀이 이전받아 2003년 1월에 한 차례 보수를 했다. 하지만 완전히 고치기 위해선 네덜란드에서 기술자를 불러와야 한다고 한다. 시설팀의 까리용 담당자는 "학우들이 까리용의 종소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다. 현재 까리용의 수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는 중이다.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없는 만큼 음이 어떻게 들리는지보다 까리용이 다시 울린다는 사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이야기했다.

까리용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1시, 오후 6시(11월부터 2월까지 오후 5시) 이렇게 하루 4번씩 울린다. 또한 매 시간대와 요일마다 울리는 음악이 모두 다르다. 즉 1주일을 주기로 28곡이 연주된다. 또한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캐롤송을 연주하기도 한다. 까리용의 음악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이 많다. 월요일 오후 6시에 울리는 반짝 반짝 작은별(Twinkle Twinkle Little Star), 화요일 오후 1시에 울리는 비제의 '카르멘', 수요일 오전 9시에 울리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목요일 낮 12시 영화 닥터지바고의 '라라의 테마', 금요일 오후 6시 모차르트의 미뉴에트 'Eine Kleine Nacht Musik', 토요일 오전 9시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일요일 오후 6시 바흐의 '아베 마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2004년 KAIST인의 생활 문화를 보다

2004년, KAIST 학생들은



솔로를 두 번 죽이는 벚나무길 잔혹사

봄이 본격적으로 무르익는 4월이 되면 아름답고 앞길에서 대학 1호관을 지나 대강당으로 가는 길은 활짝 핀 벚꽃으로 장관이 펼쳐진다. 학부지역의 길을 가득 메우는 이 500여 그루의 벚나무들은 경북 영천산으로 기계공학전공 명예교수 이정오 교수가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벚꽃이 만발하면 커플들은 봄내음 가득한 꽃길을 만끽하느라 매우 분주하지만 그들 못지 않게 바쁜 이들이 있다. 꽃내음 가득한 봄기운에 한 번 죽고, 바쁘게 오가는 커플들에 두 번 죽는 솔로

들이 바로 그들이다. 매년 아래에는 벚나무 가지치기단이나 방화단이 동지들을 모으느라 분주하다.

벚나무 아래 잔디밭에서 학과, 동아리, 동문들끼리 모여 제철을 맞은 딸기를 가득 쌓아놓고 즐기는 딸기파티는 이때 벌어지는 우리 학교 연례행사이다.

흘날리는 벚꽃에 싱숭생숭해지고 중간고사가 코앞에 닥친 이 때이지만 활짝 핀 벚꽃 아래 잔디밭에 누워 친구들과 딸기를 먹으며 젊음과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이들이 진정한 KAIST인이다.

시간이 남느냐, 노래가 남느냐 - 고은 노래방의 전설

동아리, 동문회 회식에서부터 친구들끼리의 작은 친목회까지, 이러한 모임 중 빠질 수 없는 코스가 노래방이다. 노래방 중에서도 학우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거나 이름이라도 한번 들어본 곳이 있으니 바로 '고은 노래방'이다.

각종 모임들이 많아 방이 꽉 차는 성수기 외엔 이 노래방에서는 여김없이 주인 아주머니와 기분 좋은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기분으로 받은 1시간이 다 되어갈 때 시작

되는 추가 30분이 그 게임의 신호탄이다.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예약을 해도 남은 시간은 0이 되지 않는다. 소위 '무한 시간'으로 불리는 그 서비스는 이 노래방을 우리 학교 명물로 만든 주요인이다. 우리 학교 앞에서 장사한 지 10년째인 고은 노래방의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자주 와주는 학생들에게 달리 서비스할 것은 없고 방이 많다는 장점을 살려 시간을 계속 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강신청에 대한 안 좋은 추억

학우들이라면 적어도 일년에 두 번, 계절학기를 수강한다면 최대 네 번까지 겪는 것이 수강신청이다. 이렇듯 학기를 시작하는 필수 관문인 수강신청이지만 학우들은 누구에게나 '수강신청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자리잡고 있다.

이른 아침이나 자정에 수강신청을 시작하는 다른 학교와 달리 우리 학교의 수강신청은 정오에 시작한다. 학기 중에 수강신청을 하기 때문에 정오에 마치는 수업인 경우, 교수님께 수강신청을 하는 날이니 수업을 일찍 마쳐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다반사다.

학사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web과 cais로 크게 두 군데이지만 cais 접속 회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강신청은 web에서 함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강신청을 정오부터 할 수 있다지만 정오에 수강신청을 하는 이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학우들은 로그인만이라도 해보는 게 소원이 된다. 그럴 때마다 아래에는 수강신청 서버다운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일년에 네 번 밖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일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은 학우들도 공감하는 일이다.

수강신청 서버다운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에서 학우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cais의 배신'이다. 분명히 수강신청 둘째 날부터 열리도록 되어 있는 cais가 컴퓨터의 날짜만 하루 미루면 열리거나, 첫째 날 오후에 슬그머니 열리는 경우도 있다. 우리 학교는 수강신청을 통해 학우들로 하여금 현대 사회는 '속도전'과 '정보전'이라는 교훈을 주려는 것일까?